

[TV]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details including time, title, and channel.

“거침없이 망가진다” 이순재 재발견

MBC ‘...하이킥’서 ‘아동’ 몰래 보다 들킨 할아버지로 인기 급상승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아동’이 몰래 보다 들킨 할아버지...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주인공 김병욱 감독도 나를 캐스팅하면서 모험을 했다는 대본 처음 보고 기발하다 했어.

“김병욱 감독도 나를 캐스팅하면서 모험을 했다는 대본 처음 보고 기발하다 했어. 예전이라면 조금은 체면이 주책없는 것이 아니라 질타도 받았을 겁니다. 대본 보고 난감할 때도 있는데 ‘아동’ 이상으로 난감하겠어? (웃음)”



을 느끼고, 갑자기 안 그러면 노인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사랑을 바탕에 깔고 서로 충돌하면서도 가족이 끈기에 처하면 뚱어귀도 하나되는 그 과정에서 웃음이 만들어집니다.”

아프게 침을 맞고 돌아간 초등학생에게서 ‘영감받은 너나 잘하라 OTL 성질 개안습’이라는 복수성 문자 메시지를 받고 둘째 아들(최민우)에게 ‘해독’ 감의를 받는 모습은 압권. 대발이 아버지(MBC ‘사랑이 뭐길래’)에 유익해 선생(MBC ‘하준’)처럼 들어 갖다주는 아버지와 스승 연거로 각인된 이순재가 이번엔 사정없이 망가졌다. 일각에서는 ‘이순재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오고 손자뻘인 10대들도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 이순재를

찾는다. “김병욱 감독도 나를 캐스팅하면서 모험을 했다는 대본 처음 보고 기발하다 했어. 예전이라면 조금은 체면이 주책없는 것이 아니라 질타도 받았을 겁니다. 대본 보고 난감할 때도 있는데 ‘아동’ 이상으로 난감하겠어? (웃음)”

주책없는 할아버지 같지만 이순재는 극중에서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3대로 이뤄진 가족을 묶는 가장 특전한 끈이다. 시트콤의 특성상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이순재의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무게감은 극의 중심에서 웃음과 감동을 조율한다.

반반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큰아들(정준하)을 결집하면 발로 뺨을 차고 무안해지면 소리부터 지르다 핀잔을 듣는 할아버지지만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이순재의 캐릭터를 단단하게 만든다.

‘대통령 연설’로 시청률 희비교차

동시간대 KBS ‘꽃피는...’ 3배 경중, SBS ‘긴급출동...’ 7.6% ‘뚝’

23일 밤 10시부터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로 인해 이 시간 전후로 지상파 TV 3사의 시청률이 잠깐 하락했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는 KBS 2TV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 KBS 1TV와 MBC, SBS가 나란히 신년연설을 생중계한 까닭에 유

일하게 정규 편성대로 방송할 수 있었던 ‘꽃피는 봄이 오면’은 평소보다 3배 가량 상승한 16.4%(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큰 피해자는 SBS TV ‘긴급출동 SOS’, 11시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MBC TV ‘주몽’이 신년연설 뒤인 11시에 편성되면서 시청률이 반토막나는 피해를 봤다.

그렇다고 ‘주몽’이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 전날 시청률 50%에 근접했던 ‘주몽’은 다소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편성 시간이 바뀌면서 영향을 입은 것이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이날 신년연설의 시청률은 KBS1 9.1%, MBC 16.3%, SBS 4.1%로 나타나 총 29.5%를 기록했다.

Advertisement for Kugyeobonggi (국제보청기) featuring a horse and rider, with text about 25% discount and product features.

케이블·위성TV 25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January 25th.